

## 저명 (著名)으로 가는 길

이 동렬

캐나다 웨스턴 온타리오 대학교

불란서의 철인 (哲人) 사르트르 (Jean Paul Sartre)는 언젠가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유익한 것은 일찍 죽어 주는 것이다." 라는 섬뜩한 말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사르트르가 말하고자 한 것은 자기 분야에서 두드러진 업적을 쌓아 세상에 이름을 떨친 저명 인사들 중에는 어려서 아버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한 것뿐이다.

심리학이나 사회학 같은 행동과학을 전공하지도 않은 사르트르가 무슨 근거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위대한 업적을 성취한 사람들의 특성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보면 사르트르의 말이 사실에서 크게 벗어나간 것은 아닌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그러면 도대체 "저명(著名)"이란 무엇이며 그 저명에는 어떠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이 글을 쓰는 목적은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위대한 업적을 낳는 저명 인사들의 가정적 특성에 대해서 발표된 것을 나름대로 요약해 보려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어렸을 때, 특히 10살 내지 15살을 전후해서 어떤 종류의 가정 환경이 미래의 저명인사들로 하여금 자신의 진로(進路)를 선택하게 하고 그 분야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기도록 했는가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물론 내가 여기서 말하는 위대한 업적 내지 저명이란 "평균을 훨씬 넘는다"든 가 "극히 우수하다. 수석으로 졸업했다"는 말로 표현될 수 있는 정도의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주위를 압도할 만큼 뛰어난 업적을 가리키는 정도의 저명을 말한다. 그러나 "저명"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게 흔하게 눈에 띄는 것은 아니다"라는 통계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저명인사들을 연구한 사람 중에 <저명의 요람>이라는 책을 쓴 고겔(Victor E. Mildred Goertzel)씨 부부를 빼놓을 수 없다. 우선 고겔씨 부부가 저명인사들을 어떻게 선정했는가 하는 그 선정 방법을 먼저 살펴봄으로써 "저명"이라는 말의 의미를 좀 더 분명히 해보기로 하자.

고첼씨 부부의 저명인사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미국 뉴저지 주(洲) 몽클래어(Monclair)라는 도시 시립(市立) 도서관 전기(傳記)부에 소장되어 있는 책 중에서 미국에서 태어났을 경우에는 최소 2권, 그리고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태어났을 경우에는 최소 1권 이상의 전기가 쓰여진 19세기 생존했던 인사들 400명을 모조리 뽑아서 저명인사로 규정하고 그 전기(傳記)를 바탕으로 그들이 자라 온 가정 환경이나 여러 가지 심리적 특성들을 살펴본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 나라 사람으로는 유일하게 이승만(李承晩) 초대 대통령의 이름이 들어 있다. 그러나 아무리 전기(傳記)가 쓰여졌다 해도 1930년대(代) 미국의 대 공황(恐慌) 시절에 악명을 떨쳤던 갱단의 두목 카포네(Al Capone) 같은 반(反) 사회적인 인물들은 제외했다. 다시 말하면 “저명”이라는 말은 사회적으로 보람있고 유익한 분야에서의 업적을 전제로 한다는 말이다.

둘째,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마는 저명을 성취한 사람들 중에서 세상 사람들이 소위 “천재”라 부르거나 “하늘이 내린 재주” 내지 “신동(神童)”이라는 말을 끌어낼 수 있을 정도의 타고날 때부터 높은 지능과 창의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이런 “하늘이 내린 재주”나 “신동”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일찍부터 누가 보아도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없을 정도의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셋째, 저명을 성취한 사람들이라고 능력 면에서 동질적(同質的)이거나 여러 특성 면에서 서로 비슷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다. 아무리 주위를 압도하는 업적을 성취했다 하더라도 알고 보면 저명인사 열 사람이면 열 사람이 서로 달라서 그 실태는 실로 천태만상, 각양각색이라는 것이다 .

넷째, 저명은 뛰어난 능력만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성격과 가치관, 흥미, 경험, 의욕과 결심, 그리고 운(運)이랄까 기회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서로 맞아떨어져야 한다는 것도 지적해 둔다. 능력 한가지만 뛰어나고 그 나머지 요소는 부실(不實)하다든지, 다른 요소는 다 갖추어졌는데 능력이나 의욕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저명에 이르는 길은 밤에 산길을 걷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 방면에 관련된 연구 중 시카고 대학의 심리학자 스첸티미할리(Mihali Csikszentimihalyi)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위대한 업적을 성취한 저명인사 중에서 원만하지 못한 성격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고생을 한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또한 이들을 어린 시절에 보통 아이들과는 다른 특별한 경험을 한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눈에 별 정도로 많은 저명인사들이 어려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7살이 되기 전에 아버지나 어머니 혹은 형제를 잃었다고 한다. 앞서 말한 사르트르의 말이 바로 이것을 지적한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를 일찍 잃어버렸다는 것이 저명과 어떻게 관계가 될까? 스텐티미할리 교수의 소견으로는 어려서 일찍 아버지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이로 하여금 생각을 다른 각도에서 해보도록 강요하거나 자기 자신에 관계되는 일을 좀 더 다르게 궁리(窮理)하게 하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 스스로 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독립심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왜 어머니가 아니고 아버지냐 하는데 대해서는 스텐티미할리 교수의 신기한 해석은 없다.

## 가정과 저명

그러면 이 분야에 관련된 문헌들을 종합해서 저명의 주변은 몇 가지로 나눠서 정리해 보자.

말할 것도 없이 가정은 저명의 싹이 트는 온실이다. 가정은 지적(知的)정서적인 분위기를 조종해서 아이의 발전에 기본이 되는 모든 요소를 마련한다. 그래서 가정은 아이의 아이덴티티나 자존심, 자신감을 길러 주는 최초의 교육기관이 된다.

아이가 12살 내지 13살이 되면 여러 가지 중요한 성격 특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어 굳어간다. 10살인가 11살 때부터 과학 학술지에 발표를 하여 일찍이 신동(神童)으로 불리고, 저명인사의 맨 윗자리에 앉고도 남을 그야말로 저명한 심리학자 피야제(Jean Piaget) 교수의 이론에 따르면 12살 내지 13살이 되면 아이들은 비로소 어른과 같은 추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의 옳고 그름을 논리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른다고 한다. 이와 비슷한 말이지만 해밀턴(J. A. Hamilton)이라는 심리학자의 주장도 아이가 12-13살이 되면 생리적인 변화와 지적 변화가 겹쳐 일어나면서 전례 없이 집중력이 늘어나고 이 집중력이 늘어남에 따라 지적(知的) 자제(自製)와 조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쩍 늘어난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지적 자제나 조정은 반드시 분석력에만 극한 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공상이나 백일몽(白日夢)같은 것을 통해서도 자주 나타난다고 한다. 그래서 저명을 성취한 사람들 중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하는 일에는 무서운 집중력을 보이거나 넘치는 에너지와 더불어 지적, 정서적으로 극히 독립적이며, 성취 열기가 있고, 탐닉에 가까운 지적 노력과 관심을 쏟아 붓는 그런 아이였을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앞서 저명과 관계되는 요소로 능력, 성격, 가치관, 흥미, 경험, 의욕, 기회, 등 일곱 가지를 말하였다. 그런데 “가정과 저명”이라는 제목 아래 강조되어야 할 점은 이 모든 요소들이 아이의 진로(進路)내지 직업과 연결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니 부부는 물론 아이의 학교 교육을 맡고 있는 교사들도 이 점을 명심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자신의 흥미

와 가치관,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도록 도와줄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물론 이것은 부모나 교사가 규정해 준 적성이나 가치가 아니라 아이 자신이 탐구(探究)하는 적성을 말한다. 그러나 요사이 우리 나라에서 소위 이기 학과라고 해서 자기의 재능이나 흥미나 적성과는 별 상관없이 그쪽으로만 지원자들이 몰리는 현상이야말로 장래에 위대한 업적을 낳을 저명인사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가정은 직업 선택에 관련되는 성격 즉 자기 자신에 대한 아이덴티티와 이상적인 자아상(自我像)이 틀을 잡기 시작하는 장소이다. 여기서 말하는 자아상이란 한 개인의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추구하는 “이렇게 되었으면.....”하는 이상적인 자기를 말하는 것이다. 이 자아상은 일반적으로 부모와 형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가정의 역할이 실로 크다 하겠다.

한편 자기 아이덴티티란 아이가 자기 자신을 남과 비교해 보는데서 시작된다. 남과 비교한다는 것은 자신의 아이덴티티뿐 아니라 자기의 미래, 즉 자기의 이상적 자아를 어떻게 보는 것인지를 정하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독일의 심리 학자 헥카운센 (H. Heckausen)씨에 의하면 어린 아이가 자신의 행동을 남과 비교해 보고 “잘했다” “잘못했다” 든 가 “성공이다” “실패다”로 평가하는 것은 3살이나 4살에 시작해서 8살 내지 9살이 되면 거지반 형성이 된다고 한다.

### 가정의 분위기

앞에서 말했듯이 무엇보다도 가정은 장래에 저명한 사람이 되는데 필요한 지적, 정서적 기틀을 마련하는 곳이다. 저명을 향한 행보(行步)는 단순한 생존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용기와 유희(遊戱), 유머와 창의력과 자기 계발(啓發)이 포함되기 마련인데 이런 요소들은 가정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저명을 향한 행보를 방해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요소를 들라면 부모의 지나친 탐닉이나 아니면 그 반대편에 있는 지나친 무관심과 배척, 냉대라고 할 수 있겠다. 부모의 지나친 자기 탐닉은 지나친 무관심이나 배척과 마찬가지로 아이의 자기 존중이나 창의력을 눌러서 그 결과 대인관계에서 깊은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는 아이를 만들기 쉽다. 이런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대인관계에서 불신과 불안이 많고 남의 감정은 물론 자기 자신의 감정을 깊이 살펴본다든지 자기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보는 버릇을 가지지 못하게 되기 쉽다.

### 가정 밖으로부터의 지지와 격려

저명을 성취한 사람들 중에는 그들이 어렸을 때 가족밖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이나 격려를

받은 경우가 많이 있었다. 미국의 제 32대 대통령 루즈벨트(Franklin Roosevelt), 28대 대통령 윌슨(Woodrow Wilson), 정신분석학으로 유명한 프로이트(Sigmund Freud), 진화론의 다윈(Charles Darwin)이 모두 그렇다. 이와 같이 아이가 가족 외부 사람으로부터 받는 격려와 자극은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의 심각성을 줄일 뿐더러 아이가 느끼는 심적 불안과 자기 자신에 대한 회의심을 줄여서 안정감과 자신감을 갖도록 해주는 때가 많다.

### 지명의 행로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글의 머리에서 말했던 지명의 행로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보자.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지명이란 그것을 간절하게 바란다고 다 성취되는 것은 아니다. 지명을 간절하게 회구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무엇보다도 자기가 가진 재능을 적당한 기회가 찾아 왔을 때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지명을 향한 행로에는 2개의 서로 상반되는 행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행로는 구태여 이름을 붙이자면 상합(相合) 내지 협화음(協和音)이라고 할 수 있는 행로로 주로 자연과학이나 논리적 상징적인 분야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둘째는 불합(不합) 혹은 불협화음(不協和音) 내지 미움과 갈등으로 점철된 행로로써 주로 인문 사회과학 같은 “사람 중심” 분야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상합, 협화음이니 불합, 불협화음이니 하는 말은 아이와 부모나 보호자 사이에 빗어 내는 갈등 여부를 말한다. 그러므로 불합(不합)의 가정은 부모나 보호자의 간섭이 너무 많든지 아니면 너무 적든지 하는 이 두 극단의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가정이라고 볼 수 있다. 예로 맥아더(Arthur MacArthur)장군의 어머니는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한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서 맥아더가 있는 기숙사 맞은 편에 방을 하나 얻어 놓고 밤이면 몇 시에 맥아더의 방에 불이 꺼지는가를 적었다 한다. 이야말로 지나친 간섭이랄까 탐닉이 아니고 무엇일까.

많은 지명 인사들이 걸어온 행로를 살펴보면 상합이나 협화음이 우세한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들도 많지만 격렬한 불합(不합)이랄까 불협화음(不協和音) 내지 갈등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도 많다. 이들 지명한 사람들은 이 애로를 디디고 올라서서 자기 개발의 길을 걸은 것이다. 예를 들면, 어른이 되어서도 아버지를 너무나 증오했던 체코슬로바키아의 소설가요 시인 카프카(Franz Kafka), 어렸을 때 아버지가 어린 아들의 실험 기구를 내동댕이치거나 부셔 버리면 어머니가 몰래 와서 달래 주고 격려해 주던 무선 전신의 발명가 마르코니(Guglielmo Marconi), 입만 열었다 하면 아들에 대한 욕설이요 야단만치는 아버지 밑

에서 자란 가극왕(歌劇王) 카루소(Enrico Caruso), 또한 그의 여성의化身(化身)이라 불릴 만큼 딸에 대해서 철저히 냉담했던 오페라 가수 칼라스(Maria Callas)의 어머니를 그 대표적 인물로 꼽을 수 있다. 또한 이탈리아의 물리학자 페르미(Enrico Fermi)는 아들을 냉대하기로 소문난 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우리 대한민국의 핏줄로 태어난 사람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초대 대통령 이승만(李承晩)도 야단만 치고 냉대만 하는 아버지와 질식할 정도로 숨도 못 쉬게 놀려 대기만 하는 나이 많은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한다.

불합(不合)이 우세한 저명의 행로는 아이와 부모 혹은 보호자간에 진로(進路)의 선택에 대해서 서로 엇갈린 의견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19세기 중엽에 태어난 문인과 화가들 중에는 부모가 당사자의 재능과는 별 관계가 없는 분야에 진로를 택하도록 압력을 넣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경우에 불합은 그 가정의 대표자격인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치관이 전통적이랄까 인습적(因襲的)인 가치를 선호하고 있을 때가 많다. 이러한 가정에서는 부모와 아이간에 정서적인 갈등 때문에 아이가 대인관계에 흥미를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 역설적(逆說的)인 말로 들리지마는 이러한 것과 불화는 되려 이것을 이해하고 조절 내지 극복하려는 아이 자신의 동기 유발을 촉진한다는 말이다.

또 하나의 행로는 앞에 말한 상합(相合)의 행로다. 이런 상합의 가정에서는 부모나 보호자가 자녀의 재능을 받아들여서 갈등이 적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분위기의 특징은 부모나 아이의 관계가 정서면에서나 아이의 진로에 대한 생각 내지 전체적인 관심 면에서 그다지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고, 그렇다고 서로 무관심한 것도 아닌 그런 관계가 온전한 것이 특징이다.

이 상합이 특징인 가정 환경에서 자란 저명 인사들도 불합(不合)에서 자란 저명 인사들 못지 않게 많다. 소련의 소설가인 파스테르나크(Boris Pasternak), 체코의 작곡가 드보르작(Antonin Dvorak), 흑인 인권 운동가 킹(Martin Luther king) 목사, 미국의 물리학자 오펜하이머(Robert Oppenheimer), 세균학자 플레밍(Alexander Fleming), 미국의 화가 벨로우(George Bellow), 영국의 시인이요 극작가 밀너(Alan Milner)는 이 상합 가정의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그러면 불합(不合)의 행로보다는 상합(相合)의 행로가 저명에 이르는 지름길이라는 생각이 쉽게 들겠지만, 반드시 순탄하고 파도 없고 갈등 없는 가정에서만 저명이 탄생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부모와 형제들 간에 격렬한 심리적인 갈등과 애증(愛憎)을 겪는 데서도 저명은 탄생하는 것이다. 또한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돌봐야하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잘해야겠다”, “성공해야 한다”, “유능한 사람이 되고 말겠다”는 등의 집념과 결심으로 부단한 노력을 함으로서 끝내 저명이라는 피라미드의 정상(頂上)에 오른 사람들도 있다.

19세기에 생존했던 저명인사 400명을 대상으로 <저명의 요람>을 쓴 고첼씨 부부도 이 저명 인사들 중에 불합(不恰)의 행로를 걸어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풍파 많은 가정”이라는 제목을 달아서 이들을 소개하였다. 또한 이들 가운데는 부모와 원만하지 못한 관계뿐만 아니라 가난에 시달리거나 부모, 형제를 잃어버리거나, 신체적인 장애, 지나친 간섭, 혹은 무력한 부모 때문에 마음 고생을 하고 우울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들의 어린 시절은 “즐거운 나의 집”이 아닌 사람들이 많았다는 말이다. 소련이 낳은 극작가 체홉(Anton Chekhov), 소설가 고리끼(Maxim Gorky), 미국이 낳은 작가 사로얀(William Saroyan)이 그렇다.

자식이 저명해 지기를 바라는 부모들을 위해서 저명에 이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환경적 요소들에 대해서 몇 가지 췌언(贅言)을 달아볼까 한다. 분명히 강조해 두고 싶은 것은 이들 요소가 저명의 원인이 된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저명을 성취한 사람들의 어린 시절에 대한 회고에서 자주 보고 되는 요소들이라는 것이다.

첫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지적, 창의적인 일을 하려는 강한 욕구를 키워야 한다. 저명인이 태어난 가정에서는 항상 지적(知的) 호기심이 많고 무엇이랴도 알려고 하고 배우려 하고 규명해 보려고 하고 안다는 사실 그 자체를 존중하는 경향이 보통 가정보다 월등히 높다. 어른이 되어 저명을 성취한 사람들 중에서 어린 시절에 보통 아이들 보다 훨씬 더 책을 많이 읽고 책을 손에서 놓지 않는 아이들이 많았다고 한다. 내 생각으로는 텔레비전과 비디오가 판을 치는 오늘날에도 책이 저명의 행로에 차지하는 비중은 변함이 없지 싶다. 미국이 낳은 철학자 듀이(John Dewey)도 어렸을 때 별난 독서열로 유명했지마는, 한 때 중국 대륙을 주름 잡았던 모택동(毛澤東) 수석은 책을 다른 아이들 보다 3배 내지 4배를 더 빨리 읽었는데도 하루도 책을 읽지 않고 지낸 날이 없었다고 한다.

둘째, 아이가 어른의 간섭 없이 제 스스로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그만큼 아이로 하여금 지적 정서적 자신감과 유능감을 길러 줄뿐더러 열성과 독립심을 가지게 된다. 저명을 성취한 사람들의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지적 자신감이 높다는 것을 말해 두고 싶다.

셋째, 여러 가지 흥미 있는 일을 스스로 시도해 보도록 하는 것은 그 행위를 만족감에서 오는 쾌감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직성이 무엇인가를 계발(啓發)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흥미 있는 사례(事例) 3개를 소개하고 이 글을 마칠까 한다. 사례를 하나 하나 읽으면서 “이 사례의 주인공이 앞으로 20년이 지나면 어디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될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구해 보기 바란다.

### 사례1

여자, 나이 16세, 고아, 어머니는 술꾼인 남편과 이혼을 하고 혼자 살다가 죽음.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소녀는 외할머니 밑에서 자람.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사탕을 훔쳐먹는 버릇이 있어서 할머니의 미움을 삼. 5살 때 주의를 끌기 위해서 동전(銅錢)을 삼킨 적이 있음. 아버지는 그가 살았을 당시 소녀를 좋아함. 할머니는 나이가 젊은 외삼촌과 외숙모를 데리고 살았는데 술을 좋아하던 외삼촌은 간다 온다 말 한마디 없이 하루는 영영 집을 떠나감. 외숙모는 실연(失戀)때문인지 종일 방 안에서 나오지 않음. 늘 자기 자식을 잘 못 길렀다고 생각하던 할머니는 소녀에 대해서는 무척 엄격함. 할머니는 소녀에게 이상스럽게 보이는 옷을 입히고, 소녀가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싫어해서 학교도 보내지 않음. 아버지 쪽의 고모는 절름발이, 삼촌은 천식 환자.

### 사례2

남자, 중3, 의사로부터 신경쇠약으로 학교를 쉬는 게 좋겠다는 의견서를 받음. 전반적으로 우수한 학생이 아님. 친구가 별로 없음. 교사들의 의견은 "문제가 있는 아이." 아버지는 소년의 운동신경이 너무 둔하고 학교에서 잘못하는 것이 불만임. 때로는 무슨 광신도(狂信徒)처럼 찬송가 구절을 혼자 중얼거림. 소년의 부모는 이 아이가 어딘지 "남과 다른 아이"라고 생각함.

### 사례3

남자, 6살, 출생 때 두골이 큼. 뇌열(腦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음. 소년이 태어나기 전 먼저 태어난 3명의 자매가 죽었음. 이웃 사람들은 소년이 비정상적인 아이라고 생각하나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정신병"이 있는 것 같다는 말을 하자 어머니는 노발대발,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자기가 집에서 혼자 가르치겠다고 으름장을 놓음.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을 공부한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이들이 장차 어떤 성인이 될 것인가 예언을 해 보라고 했다면 아마도 사례 1은 절도범이나 극빈자, 혹은 창녀(娼女)로, 사례 2는 정신병자, 사례3은 정신 박약아, 아니면 성인이 되어서도 어머니의 치마 끝을 놓고 다니지를 못하는 "어른 어린애"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사실을 이야기하면, 사례 1은 미국 제 32대 대통령 부인으로 당시 미국의 정치, 사회, 교육, 문화에 깊이 관여를 했던 여류 명사 엘리노어 루즈벨트(Eleanor Roosevelt), 사례 2는 물리학자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 사례 3은 발명의 왕이라 불리는 에디슨(Thomas Edison)의 어린 시절 이야기다.

표면적이고 불충분한 자료였기도 하지마는 독자들을 유인(誘引)하려고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면만 보여 주었기 때문에 예측에 차질이 생겼다고도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인간의 행동과 인간의 장래란 우리가 알고 있는 방정식에 집어넣어서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사의(不可思議)한 면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으로는 손색이 없는 좋은 사례다.

아무리 상합(相合)한 가정, 저명에 이르는데 필요하다고 알려진 요소라는 요소는 다 갖춘 것 같아도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불합(不合)한 가정, 갈등과 불만이 용암(鎔岩)처럼 끓어오르는 가정에서도 저명은 그 어려움을 헤치고 올라오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 장래의 불규칙성이야말로 자식의 저명을 꿈꾸는 많은 부모들에게 불안도 되고 동시에 한 가닥 희망과 위안도 되는 것이다.

저명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그러나 반드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